

봉행사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부처님의 출현은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평화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해 존재한다는 진리의 실상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담은 지혜의 창고가 바로 대장경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창고를 잘 만들고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대장경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천년 전, 대장경을 판각하는 원력으로 선조들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을 조조한 이후에는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1096년 속장경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두 장경이 지금 해인사에 전하는 팔만대장경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부처님의 가피로 민족의 참화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대장경 조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에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고 경남 남해에 분사도감(分司都監)을 설치하여, 마침내 대역사 끝에 1251년 현재에 전하는 고려대장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대장경과 대조하여 엄밀하게 교정을 마친 고려대장경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가장 정확한 대장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화도라는 작은 섬을 근거로 항전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인류문화사 최고의 유산을 남겼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후손들이 분단된 국토에서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장경을 통해 평화와 희망을 찾으려 했던 선조들은 우리 후손들이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은 이와 같은 조상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고통이자 비극입니다. 대립과 불신,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분단은 형제와 친족을 갈라놓고 민족의 화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대장경을 조성했듯이, 현재는 공존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여 동질감을 회복하고 한민족으로 함께 하자는 발원을

담은 대장경 조성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려대장경 천년을 맞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평화대장경’을 조성하는 민족사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평화대장경의 판각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공존과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려대장경의 공동 연구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사업의 성사를 위해 과거 대장도감이 위치해 있던 강화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와 물론, 분사도감이 위치했던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화대장경의 조성이 이 시대의 아픔인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고려대장경이라는 인류문명의 보고를 남겨준 선조들에게 후손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큰 가피로 우리 민족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불기2555년 10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